

113. 자연과 환경

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(창 1:1)

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(창 1:31상)

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

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(시 19:1)

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(시 24:1)

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(롬 8:19)

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

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

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

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

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(롬 8:21-23)

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

(다같이)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(사 11:9)